

# ICT 유망기술 석·박사급 인재 키운다

### 전북대, 180억원 규모 '지역지능화 혁신인재양성사업' 선정 원광대·전북테크노파크 참여... 전북자치도 77개 기업 협업 대학원 과정 '지능정보융합공학과' 개설... 재직자 전문 교육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180억 원 규모의 '2024 지역지능화 혁신인재양성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ICT 유망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기반 공동연구 활성화와 재직자 석·박사급 혁신인재양성을 목적으로 3개 지역을 공모한 가운데 전북대를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사업 선정을 통해 전북대는 정부 지원금 150억원과 지자체와 대학이 각각 15억원씩을 매칭해 총 180억원을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호남권 주권대학을 맡아 앞으로 7년 6개월 동안 사업을 수행한다. 원광대와 전북테크노파크가 참여기관으로 함께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익산시가 지원한다.

또 국립농업과학원, (재)자동차동차융합기술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CAMTIC종합기술원 등 9곳의 지역 혁신기관과 77개의 지역 기업들이 협업한다.

이 사업을 통해 전북대와 원광대는 지역 기업체와 연계한 지역산업 지능화 혁신연구를 연 8건 이상 수행하고, 재직자 공학 석사 지능화혁신 학위과정 운영을 통해 연 20명 이상의 인재를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직자 학생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재직자 창의자율과제도 연 5건 이상 수행한다.

이를 위해 대학원 과정의 '지능정보 융합공학과'를 개설, 지역 산업체 재직자들의 전문 지식에 지능화 교육을 접목시켜 지역 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석사학위를 배출하고, 향후 박사 학위과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재직자 교육에는 전북대 전자공학부를 비롯해 바이오메디컬공학부,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대학



전북대학교는 180억원 규모의 '2024 지역지능화 혁신인재양성사업'에 선정됐다. 사진은 전북대학교 전경.

원 융합기술경영학과 교수진들이 참여한다.

이율리, 참여 교수진은 전북특별자치도의 3대 주축 산업인 농생명 바이오,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 부품, 탄소 융복합 소재 관련 기업들의 제품과 기술에 지능화 기술을 결합시키는 공동 연구 수행을 통해 지역 내 기업 혁신과 지역산업 발전을 견인한다.

연구책임자인 정용재 교수(전자공학

부)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기업들의 기술력에 지능화 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지역 산업의 혁신을 이루고, 아울러 재직자 보유 전문기술에 지능화 지식이 접목돼 지역 기업의 경쟁력이 지속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참여교수들과 함께 사업의 효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 첫 'IB 후보학교' 승인

### 남원 용복중, 국제 바칼로레아 본부로부터

남원 용복중학교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IB(국제바칼로레아) 후보학교로 승인됐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IB 중학교 과정 프로그램(MYP)을 운영하는 용복중학교가 IB(국제 바칼로레아 본부)로부터 후보학교 승인을 받았다.

이에 용복중은 언어와 문학, 언어 습득, 개인과 사회, 체육과 보건, 과학, 수학, 예술, 디자인 등 8개 교과 간 학문적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다각도로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세계적 맥락으로 탐구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과정 프로그램(PYP)을 운영하는 전주야초초등학교도 후보학교 승인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IB 프로그램은 전북교육청과 IB가 함께 '관심학교-후보학교-인증학교(월드스쿨)'라는 인증 단계를 지속적이고 책임감 있게 건설된다.

한편 초등학교 프로그램(PYP)과 중학교 프로그램(MYP)은 후보학교부터 본격적인 IB 수업 운영이 가능하며, 고등학교 과정 프로그램(DP)은 월드스쿨 인증을 거쳐야 IB 수업이 가능하다. 후보학교로 승인 받은 학교는 IB로

부터 △IB 교수학습자료센터 사용 △컨설팅비 배정을 통한 컨설팅 △IB 프레임워크(교수·학습 체계) 작을 등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아 IB 수업과 평가가 가능하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2022년 하반기부터 IB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검토 및 타당성 분석을 거쳐 2023년 IB 준비학교 시범 운영, IB 관심학교 공모를 통해 IB 프로그램 운영학교를 지원해 왔다.

지난 3월 21일 IB와 협력각서(MOC)를 체결, 4월부터 대학과 연계한 IB 인증교사(IBC) 양성에 힘쓰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IB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 현장의 관심은 매우 뜨겁다"며 "전북교육청은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가 IB본부의 승인 과정을 거쳐 최종단계인 월드스쿨 인증을 받을 때까지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함윤영 기획처장, 박수정 의료원장, 이상용 LINC 3.0 사업단장, 신상민 스포츠단 단장, 신현실 국제교류원장 대행, 이창현 한의과대학원장

## 우석대, 보직인사 단행 | 함윤영 기획처장·박수정 의료원장 등 총 6명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7월 1일자로 기획처장에 함윤영(전기자동차공학부) 교수를 임명하는 등 일부 보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함윤영 기획처장은 연세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1년 부임해 홍보실장과 국제교류센터장, 기획조정처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또한 의료원장에 박수정(한의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박수정 의료원장은

원광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 후 한미르한의 원 진료원장, 동신대 한방병원 진료과장, 삼지대 한의학과 교수 등을 거쳐 2016년 대학에 부임했다.

더불어 신임 LINC 3.0 사업단장에는 이상용(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이상용 LINC 3.0 사업단장은 전북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과 미국 미네소타주립대에서 각각 석사 학위 취득 후 전북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우석대학교에는 1995년 부임해 종합실습본부장과 입학처장

등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총장 직속 기구로 신설한 스포츠단의 초대 단장은 신상민(스포츠지도학과) 교수가 맡게 됐다. 현재 체육과대학장인 신상민 스포츠단장은 용인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9년 부임해 체육부장과 학과장 등을 맡은 바 있다.

이 밖에도 국제교류원장 직무대행에 신현실(조경학과) 교수가, 한의과대학에 이창현(한의예과)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메카노헬스 혁신의료기기 인력 양성 본격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실무 중심의 첨단 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을 본격화한다.

4일 전북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메카노바이오헬스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국내외 첨단 의료기기 산업 확대와 지역 전문인력 수요에 맞춰 현장실습 중심의 의료기기 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

### 2025년까지 총 22억원 투입

주시, (사)캠틱종합기술원 등이 함께 참여한다.

사업 선정에 따라 각 기관은 오는 2025년까지 국비 14억원 등 총 22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을 교육 장비를 구축하고, 기초와 실습, 심화 교육과정 등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관련 분야 연구개발과 인력 양

성 및 실무 중심의 의료기기 생산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학교는 혁신 의료기기 연구·개발·생산·비밀상실증과 관련된 기업지원 및 기초 교육에 필요한 장비 시설 인프라가 전북대 병원을 중심으로 집적화 되고 있다"며 "앞서 구축된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 연구센터와 올해 완공 예정인 메카노바이오융합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센터가 연계해 메카노바이오 혁신의료기기 전주기 체계를 완성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단위학교 운영위 활성화 노력"

### 최정열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선출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협의회장에 최정열 부안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부안여고 운영위원장)이 선출됐다.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4일 전북 대안교육지원센터 3층에서 14개 시·군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로 최정열 신임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을 선출했다. 임기는 2025년 6월까지다.

이날 선거에서 최정열 신임협의회장은 전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본연의 기능회복, 시군학교 운영위원장협의회 위상적립, 단위학교운영위원회 역량강화 프로



최정열 신임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전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본연의 기능회복, 시군학교 운영위원장협의회 위상적립, 단위학교운영위원회 역량강화 프로

그럼 운영 등을 약속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 진행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신임 최정열 회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위상을 재정립하고 단위학교 운영

위원회의 사회공헌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말했다.

최정열 신임 협의회장은 전출포 자동차공고 운영위원장, 前부안동초 운영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학교운영위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남원 학교 식중독 의심 환자 급증

### 향후 늘어날 가능성도... 전북교육청 "남원시와 대응체계 구축"

남원지역 학교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식중독 의심 환자가 급증했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남원시, 남원시보건소 등에 따르면 남원지역 초·중·고교의 식중독 의심 환자가 969명(오후 6시 현재)으로 늘었다.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의심 환자가 발생한 학교 수도 15곳에서 22곳으로 늘었다.

이들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들은 구토나 발열, 설사, 복통 등의 식중독 의심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전북교육청과 남원시는 여러 학교에서 집단으로 의심 환자가 나온 것으로 미뤄볼 때 특정 업체가 납품한 식재료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해당 학교에서는 모두 일부 업체로부터 같은 식재료를 납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과 남원시보건소 등은 환자들과 급식 및 조리 기구에서 검체를 채취해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현재 남원교육지원청과 남원시는 각각 비상대책상황실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5개 학교가 단속수업에 들어갔으며, 13개 학교에서는 대체식을 나눠주고 있다"면서 "추가 발생 등에 대비하기 위해 남원시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단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교육행정 정책 기조 전환하라"

### 전국공노조 전북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지부장 김영근)는 4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노동자들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여 전북교육청의 교육행정 정책 기조를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근 지부장은 "사무관·서기관 인사를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6개월 내라도 단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5급 승진인사와 관련해 시행령이 4년에서 3년으로 축소되자마자 곧바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급 승진 대상자 1명에 따른 배수율에 안이한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 김 지부장은 "현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개방형을 포함한 임기제 공무원 70명"이라며 "임기제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센터, 위원회 등

자리를 늘려 보은 인사로 채운다는 말도 헛말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더군다나 "7월 1일자 일반직 공무원 인사에서 6월 20일에 일반직 공무원 인사 공고시 예외적으로 5급 사무관 이상의 인사가 발표되지 않아 공공했는 데, 주변의 예상대로 특정인이 4급으로 승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영근 지부장은 "서거석 교육감은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자신이 말하던 인사의 공평?공감이 담보된 합리적 인사로 되돌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끝으로 "스마트기기와 전자철관, 인조잔디, 태양광가도등, 과학실·도서관 등 각종 시설 현대화 사업, 영산디스플레이, 전광판, 각종 체육시설 설치 등으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 사업보다 교육 정책이 두드러지는 전북 교육행정으로 기조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리자 역량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4~5일 이틀간 전주대학교 J아트홀에서 초·중·고교 교장과 교감, 교육지원청 국(과)장을 대상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리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부서·사업별로 학생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초 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북에서는 전주 초등학교 4곳·중학교 5곳·고등학교

6곳 등 총 15개교에서 교육부 선도학교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학생의 성장을 돕는 맞춤형 정책을 통해 중복과 사각지대를 없애 온전한 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의미가 크다.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이덕난 국회의원조사처 연구관, 박지애 교육부 사무관, 신연우 서울방화초 교장이 강사로 참여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의미와 정책 방향 △실제 학교 운영 사례를 주제로 강의를 펼친다. /장은성 기자